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김한나(金한나)*

우한술(禹한술)**

이승호(李丞鎬)***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학술적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 대학 간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은 글로벌 교육협력의 핵심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한·중·일 3국 또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전개된 과정과 유치 현황,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방안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유학생 출신국가 쏠림, 인문계열 편중 등의 문제가 있었고, 언어 문제로 과생된 취업 연계 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석·박사 고급인력과 응용과학 분야에서의 유학생 유치를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유학생 양적 확대에 따른 질 관리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유학생 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의 보완, 그리고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Study Korea 2020 Project, 글로벌 교육

* 제1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hannakim@kedi.re.kr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연수주임, shout4god@snu.ac.kr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전공 박사수료, hivision@snu.ac.kr

I. 서론

한국은 2005년 교육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Study Korea Project('05~'12)'를 도입하여, 정부의 외교정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및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하여 왔다(남수경, 2012). 당시 교육부는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교육체제를 세계화함으로써,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교육부, 2012a). 그리고 2013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2020년까지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위 정책을 'Study Korea 2020 Project('13~'20)'로 더욱 확대하였다(교육부, 2012a).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는 유학생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유학수지 개선, 고등교육 국제화 및 질 향상,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외국 우수 인재 육성 및 활용,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 인력 보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교육부, 2012b; 박남기, 2016; 송영관, 양주영, 2009; 임희진, 2014).

하지만, 유학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에서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민귀식 외, 2014). 실제로 2011년까지 89,537명으로 증가하였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2년과 2013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교육부, 2015a). 이에, 교육부(2015b)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 취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유치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고, 주춤했던 유학생 수는 2015년에 91,332명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학생의 증가세가 2020년까지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학생의 언어, 교육과정, 생활환경 등 교육의 질에 관한 비판과 유학수지 적자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민귀식 외, 2014; 오정은 외, 2013; 양영유, 2016).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학생 유치 노력은 비단 한국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쟁을 해오고 있다(오정은 외, 2013; 임희진, 2014; Robertson, 2010). 최근에는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유학생 양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중국 정부가 2010년 '중국유학계획(留學中國計畫, Study Abroad in China)¹⁾'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유학생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고, 일본 정부는 2013년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한·중·일 3국은 '유학생 유치 전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남윤서,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몇몇 연구는 특정한 국가 혹은 두 국가의 유학생 정책을 분석하여(구자역, 김숙이, 김한나, 이경자, 전춘련, 2014; 김우중, 2011, 민귀식 외, 2014; 양만기, 2013, 若山薰里²⁾, 2014), 한·중·일 3국 정부가 세계적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보고 정책적

1) '留學中國計劃(유학중국계획)'을 한국어 어순에 맞추어 '중국유학계획'으로 번역함

2) 와카야마 카오리(Wakayama Kaori)

시사점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유경(2011)과 남수경(2012)이 국비유학생과 정부초청장학생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한 바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비유학생과 Study Korea 2020 Project와 같은 각국 정부의 주요 유학생 유치 정책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3국의 주요 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의 정부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화의 흐름은 각국의 교육정책과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엄상현, 변기용, 2012). 그리고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사업 등을 통해 학생, 연구자 등의 국제간 이동은 활발해지고 있으며,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이수정 외, 2013).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학생에 관한 정책 연구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과 문화적 맥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같은 동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 및 교육정책 추진 등에서 경쟁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유학생에 관한 비교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유경(2011)의 경우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국비유학제도의 특징을 비교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비유학제도의 개선점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국비유학제도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원자에 따른 차별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수경(2012)은 한·중·일 3국의 정부지원 유학생 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Global Korea Scholarship(이하 GKS)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GKS 초청 및 파견에 있어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언어 및 문화의 확산 측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파견 GKS는 단기지원사업 형태로 확대 운영해야 하며, 개도국을 위한 GKS 외국인 초청사업은 교육 ODA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몇몇 연구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과 같이 국가를 한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천문과 이일용(2014)은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비교하여 중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사업의 현황 파악, 국가 차원의 대학 홍보, 교육 및 생활 서비스 개선, 진 관리 시행, 유치 및 관리 감독 체제의 통일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우중(2011)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써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였으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강의 충실도, 평가제도와 같은 세부 항목에서는 일본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국내 기업의 유학생 활용 전망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확립 및 홍보 전략 수립, 한류 연계, 한국어 교육 거점화 사업, 학사관리, 취업여건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유학생 정책, 일본의 유학생 정책과 같이 특정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구자익 외(2014)의 경우, '중국유학계획' 정책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정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 유치를 철저한 수익사업의 관점을 바탕으로 엄격한 학사 관리와 대학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유학생의 아시아, 인문계열, 명문대, 대도시 쏠림 현상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若山薰里(2014)는 일본의 '유학생 30만명 계획'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로, 고도인재 유치를 목표로 시작한 정책이 대학의 국제화 정책으로 전도되고 있으며, 대학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소수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 간 경쟁의 심화로 대학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선도하는 몇몇 대학에 지자체의 지원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한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송영관과 양주영(2009)은 인적자원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한 외국인 전문 인력 활용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문홍호, 전성홍, 이희옥, 김인과 민귀식(2010)은 한국과 중국의 유학생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그리고 김중섭(2010)은 외국 유학생의 다변화 전략과 이를 위한 지원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과 윤나경(2012)은 대학 수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와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였다. 오정은 외(2013)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는 취업 박람회, 인턴 및 귀국유학생 동문회 지원 확대와 정부초청 장학생에 대한 졸업 후 의무규정 개발 등을 도출하였고, 장기적으로는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활성화, 유학생 정책 차별화,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민귀식 외(2014)는 Study Korea 2020 Project를 중심으로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 확대에 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유학 형식의 다양화, 높은 아시아 유학생 비율, 언어·취업기회·전공경쟁력·생활비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학생 유치 다변화, 유학생 학습 수준의 다층화, 입학 규제 완화 및 생활관리 강화 등의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유학생 정책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GKS, 국비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비유학생이나 3국의 최근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몇몇 연구는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유학생 정책을 이해하고 각국의 유학생 정책 개선을 위해 논의하였지만,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갖는 함의나 시사점까지 논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 개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연구의 경우, 각국의 유학생 정책이 전개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과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전개과정과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 배경과 목적, 추진 체제와 방안, 성과와 한계를 비교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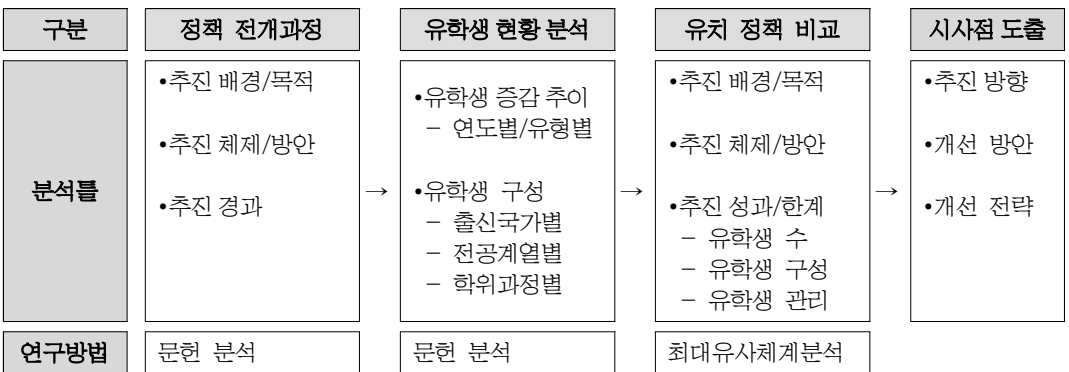
교육 분야의 국제비교연구는 다른 나라의 교육 정책과 제도, 시스템을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의 수립 및 개선을 참고 사례를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한유경, 2011; Kubow & Fossum, 2007). 이에 본 연구는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보다 국제적인 시야와 안목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Study Korea 2020 Project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국제비교연구 방법은 국가사례 수를 분석단위로 하여 다수국가비교, 소수국가비교, 단일국가비교로 구분되며, 연구의 주제, 시간, 자원, 연구자의 선호도 및 인식에 따라 다르게 활용된다(한유경, 2011; Landman, 2016). Landman(2016)에 따르면, 다수국가비교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국가사례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설 검증에 주로 활용되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비교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소수국가비교는 20개 미만의 국가 사례를 비교하는 것을 뜻하며, 정량적인 통계 검증은 어렵지만 정책 및 제도의 구체적 맥락을 논의할 수 있다. 소수국가비교는 유사한 국가 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특징을 분석하는 최대유사체계분석(Most Similar System Design, MSSD) 방법과 다른 국가들의 공통된 정치적 산출을 살펴보는 최대상이체계분석(Most Different System, Design, MDSD) 방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일국가비교는 한 국가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되 다른 국가가 차용할만한 함의를 찾는 방법이나, 일반화가 어려워 국제비교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수국가비교(Few Countries) 방법을 통해 정책의 사회·경제·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최대유사체계분석을 통해 한·중·일 3국 유학생 정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문화적 맥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같은 동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 및 교육정책 추진 등에서도 경쟁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남수경, 2012; 신현석, 노명순, 엄준용, 최보윤, 김정은, 2008; 한유경, 2011). 또한, 3국이 유사한 목적으로 유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 주도의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비교분석을 위한 한·중·일 소수국가비교 및 최대유사체계분석 방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유학생 현황과 유치 정책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교육부, 중국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hina Scholarship Council, CSC), 일본유학생지원기구(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유학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동시에 주요 선행연구와 문헌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교육부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전문가들이 정리한 2차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치 정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학생 현황 분석은 연도별, 유형별 유학생 증감 추이와 출신국가, 전공계열, 학위과정에 따른 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 분석은 추진 배경 및 목적, 체제 및 방안, 성과와 한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성과와 한계는 다시 유학생 수, 구성, 관리 측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의 방향과 방안, 개선 전략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IV. 연구결과

1.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전개과정

1) 한국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2000년 대 중반까지 정책 의제로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남수경, 2012). 이는 유학생 유치가 1980~1990년대부터 정책으로 자리 잡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송선영, 이수진, 2011). 다만, 1967년 외국인 대상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 지원사업이 석·박사, 연구과정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1977년 국비유학생사업이 작은 규모로 도입된 바 있다(남수경, 유성상, 송경오,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 정책은 1988년 올림픽 개최, 조기유학 열풍 등의 국제화 흐름,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의 설립, 그리고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관련 업무부서의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해 기반이 마련되었다(남수경 외, 2009). 이 당시 교육당국 또한 대학교육의 국제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박성훈, 송유철; 2013). 박성훈과 송유철(2013)에 따르면, 지난 30년 간 ‘민족주의’에서 ‘글로벌 사회’로 한국의 이념 전환, 해외 교육기관의 대학평가 활성화로 인한 정부의 경각심 강화, 불임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가 증가 등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유학생 유치 정책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구조 변화와 국제적 흐름이 맞물린 결과이며,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 우수 교육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교육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4년 12월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유학수지의 개선을 위해 ‘Study Korea Project’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한국의 유학 홍보 강화를 기대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를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외국인 유학생 운영체제의 질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유학생 정책의 초점을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로 전환하였다. 또한 교육부(2010)의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에서는 중국과 다양한 국적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정주’, ‘수학’, ‘졸업 후’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맞춤형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적이다.

2011년 9월에는 한국 정부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였다(교육부, 2011). 이 방안은 유치 측면, 관리 측면, 그리고 시스템 측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방안의 세부 내용 중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합동 현장 실태조사 추진’ 항목은 실적이 좋지 않은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개선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질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를 도입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학을 선정 및 인증하였다(이천문, 이일용, 2014). 인증제는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2011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다시 보완을 하여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12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목표인원을 달성하자, 이를 조정하여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13~’20)’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2a).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개선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기존의 ‘Study Korea Project(‘05~’12)’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질 향상, 국제화, 유학수지 개선, 한국에 우호적 외국 인재풀 육성 등을 기대하였다(교육부, 2012a; 교육부, 2012b). 그리고 ‘국가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 GKS)³⁾’ 사업 규모 확대, 한국유학시스템 구축 및 홍보,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 연계를 세부 추진과제로 삼아 추진해오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고 발표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부터 취업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였다(교육부, 2014). 그리고 2014년 9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제2차 아세안+3⁴⁾ 교육장관회의’의 아세안+3 장관들 앞에서 아세안 지역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GKS 확충 계획 및 아세안+3 국가 학생들 사이 교류 촉진을 위한 방안 등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근의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스펙트럼을 다양화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유학생 증가세가 주춤하게 되자 교육부는 2015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하였고,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목표 기한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하였다(교육부, 2015b). 그리고 유학생 저변 확대, 출신국가 다변화, 그리고 한국 유학 매력도 제고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우수 지방대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GKS(Global Korea Scholarship) : (In-bound) 정부초청장학생, 우수자비유학생지원, 우수교환학생지원, 주요 국가 초청연수, (Out-bound) 국비유학생, 한일 이공계 학생교류 등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의 국제 장학사업(교육부, 2012)

4) 아세안+3 국가: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2) 중국

중국은 1949년 신(新)중국 성립 이후 소련의 고등교육모델을 모방해 오다가 1977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진두지휘 아래 중점대학 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됐다. 이듬해 개시된 개혁개방으로 미국의 고등교육 모델이 도입돼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교육체제의 기본 틀이 세워졌다. 그리고 1978년과 1989년 사이, 개혁·개방의 시대에 자비유학생이 자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들은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배양하여 중국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 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2000년 초 제정한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모집 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같은 해에 중국정부장학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국 정부 장학금 연도심사방법'을 도입하였다. 2001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또는 학자들이 중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정부 장학금 관리를 규범화하여 '중국정부 장학금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문홍호 외, 2010). 또한 2000년 제정된 '유학생 입학 관리체제'를 통해 교육부가 '중국정부장학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을 책임지게끔 하였다. 이후 중국어 열풍에 힘입어, 2008년까지 세계 28개 국가에 305개의 공자 학원과 학당을 설립하며 중국어 홍보에 힘썼다(김중섭, 2010).

2004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 제한을 완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조건부 중국어 능력시험 면제시의 입학 규정'을 제정하여 일정한 중국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 학생의 유학 신청과정을 간소화했다. 또한, 2005년에는 각 국의 법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병역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별히 학적을 보류하여 자국에서 병역을 마친 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 보류 시 병역 복무 관련 사항'을 제정하였다. 한편, 중국 내 의학 교육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2007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의학 본과교육(영어) 질 컨트롤 기준 임시 시행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본과 중국정부 장학생의 예과교육 개설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본과 교육에 들어가기 전 기초적인 전공지식과 중국어 실력을 갖추도록 하였다(이천문, 이일용, 2014).

2010년 9월,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과의 교육교류와 협작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유학계획(留學中國計劃, Study Abroad in China)' 프로젝트를 제정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50만 명을 유치하고 아시아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教育部, 2010).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에 맞는 유학업무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 교육규모를 확대하고, 교수의 질을 높이며 우수 대학 및 학과군을 설립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우호적인 상태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200여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이 377,054명으로 이들은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746개의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고등교육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을 추가로 유치하여 중국정부 장학생의 수를 점차 늘릴 예정이며, 우수 대학을 매년 10개씩 선발하여 2020년까지 100개의 유학시범기지로 지정할 계획이다(구자익 외, 2014). 동시에, 중국어 교육이 우수한 학과를 매년 50개씩 선정하여 중국어교육 명품전공을 1,000개 확보하고, 영어수업 명품교과목 또한 2020년까지 300개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별, 단계별 다양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의 일원으로서 갖는 정치·경제적 위상은 물론, 전 세계적인 중국어 배우기 열풍의 효과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도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은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주요 명문대가 영어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제화에 발맞추고 있으며, 중국 교육부도 학생 교류, 연구 협력 등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역사가 한국과 중국에 비해 길다. 일본은 교육인구 감소와 대학재정난 등의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 전체의 재구조화를 위해 1980년대부터 교육개혁을 시행하였고(송선영, 이수진, 2011), 1983년 8월의 '21세기 유학생 정책에 관한 제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이는 고등교육을 국제화하고자 교육과 연구 분야, 인재 육성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였다.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계획'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당시 8,116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를 21세기 초까지 1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1만 명은 국비 유학생으로, 9만 명은 사비 유학생으로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3년 12월 중앙교육심의회는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전개에 대해'를 발표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외국과의 상호이해 증진, 국제사회에 지적 공헌, 일본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일본인 학생 육성을 향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으로 삼았다.

아베 신조(あべ しんぞう) 총리는 2006년 제 165회 개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이 더 열린 경제사회를 구축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가교가 됨을 지향하며 '아시아 Gate Way 구상'을 제안하였다. '아시아 Gate Way 구상'은 2007년 5월에 공식 발표되었고, 7개 세부전략 중 하나로 '국제 인재의 수용 및 육성' 전략을 포함하였다. 이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쿠다 야스오(ふくだ やすお) 총리는 2008년 1월 제 169회 국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계획안을 제안하며, 향후 산학연계를 통해 대학원 및 기업으로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를 바

당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7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해 유학생을 적극 수용하는 구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제시하였다(文部科学省, 2008). 이는 2020년까지 약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에 세계적 인력, 상품, 화폐 등이 활발하게 이동하도록 유도 하자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자국 대학 입학, 졸업, 취업지원 등 유치를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 활용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김중섭, 2010; 若山薰里, 2014)

이 계획의 기본 추진 방침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文部科学省, 2008). 첫째, 2020년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한다. 둘째, 고도인재 수용과 연계시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추진한다. 셋째, 국제공헌으로써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시책을 전개한다. 이와 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일본유학 홍보, 입시·입학·입국 절차, 대학의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 생활환경, 졸업 후 진로 및 취업까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정책 수행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계획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화 거점 정비사업 (글로벌 30)’은 2009년에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전국의 대학 가운데 30군데를 선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화 거점으로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유학생 교류 거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교육지원 및 관광 진흥 등 각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책이다. 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취업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남수경, 2012; 若山薰里, 2014).

뿐만 아니라, 일본은 관광사업과 연계해 교육 정보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설명회와 일본 유학페어를 해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보 알리기에 힘써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중국의 베이징시, 헤이룽장성, 광둥성 등 현지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일본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해외의 주요 대학과 체결을 맺어 일본어 교육 자체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89,537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가율은 2009년 18.6%에서 2011년 6.8%까지 줄어들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유학생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게 된다. 이후, 2015년에는 다시 유학생 수가 소폭 증가하며 총 91,332명의 인원을 기록하였다. 이를 세부 유형별로 구분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비유학생 증감이 전체 유학생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부초청장학생은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증가 폭이 컸고, 자국정부과견 장학생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학 초청장학생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8천 명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7천 명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유학생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자비유학생이 78,845명(86.3%), 대학초청장학생 6,802명(7.4%), 정부초청장학생 2,901명(3.2%), 자국정부과견장학생 1,178명(1.3%)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외국인 유학생 유형별 증감 추이 (한국)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비유학생(명)	64,271	71,843	75,325	73,321	73,420	73,138	78,845
정부초청장학생(명)	1,629	1,942	2,513	2,944	2,799	2,701	2,901
대학초청장학생(명)	6,634	8,091	8,504	8,207	7,136	6,890	6,802
자국정부과견(명)	503	493	573	610	896	1,042	1,178
기타(명)	2,813	1,473	2,622	1,796	1,672	1,120	1,606
합계(명)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증감(%)	18.6	10.5	6.8	-3.0	-1.1	-1.2	7.6

* 출처: 교육부(2015a). 2015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5. 4. 1기준 집계, 학위·비학위과정 포함)

주요 출신 국가별 유학생 현황의 경우, 중국이 54,214명으로 59.4%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아시아권인 베트남 4,451명, 몽골 3,492명, 일본, 3,138명 순으로 유학생 비율을 차지하지만 3개국의 합은 12.1%에 그쳤다. 그리고 미국이 2,968명 3.2%로 다섯 번째로 많은 유학생 비율을 차지했다.

<표 2> 주요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 2015년)

구분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미국	우즈베키스탄	기타	계
학생수(명)	54,214	4,451	3,492	3,138	2,968	1,994	21,075	91,332
비율(%)	59.4%	4.9%	3.8%	3.4%	3.2%	2.2%	23.1%	100.0%

* 출처: 교육부(2015a). 2015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5. 4. 1기준 집계, 학위·비학위과정 포함)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39.8%로 가장 많았고, 공학 9,707명, 자연과학 4,583명, 예체능 4,390명, 의학 706명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자 수가 22,178명으로 낮지 않은 비율 값을 보였다.

<표 3> 외국인 유학생 전공계열 현황 (한국, 2015년)

구분	전공계열					연수		계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어학연수	기타연수	
학생수(명)	36,353	9,707	4,583	4,390	706	22,178	13,415	91,332
비율(%)	39.8	10.6	5.0	4.8	0.8	24.3	14.7	100.0

* 출처: 교육부(2015a). 2015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5. 4. 1기준 집계)

외국인 유학 현황을 과정별로 살펴보면,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부과정에 32,972명이 36.1% 정도를 차지하였고, 석사 16,441명, 박사 6,326명으로 대학원 과정 인원이 약 24.9%였다. 그리고 학부생 대비 대학원생 비율이 약 70%로 나타났다.

<표 4> 외국인 유학생 과정별 현황 (한국, 2015년)

구분	과정별			연수		계
	대학(전문대학)	석사	박사	어학연수	기타연수	
학생수(명)	32,972	16,441	6,326	22,178	13,415	91,332
비율(%)	36.1%	18.0%	6.9%	24.3%	14.7%	100.0%

* 출처: 교육부(2015a). 2015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5. 4. 1기준 집계)

2) 중국

2008년 베이징대를 시작으로 칭화대 등 명문대학들이 잇따라 자체 본고사를 시행해 유학생을 선발할 만큼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문홍호 외, 2010).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에 유입하는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학생 총 인원이 2015년 기준 397,635명으로 거의 40만 명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10%를 상회하던 유학생 증감률이 최근 3년 동안 감소하여 5.5%까지 떨어진 점을 볼 때, 2020년까지 유학생 50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학생의 유형에 따른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자비유학생과 정부초청장학생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초청장학생이 2009년 18,24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7.7%를 차지하였는데, 2015년에는 40,600명까지 증가하여 전체 유학생 인원의 10.2%에 이르렀다.

<표 5> 외국인 유학생 유형별 증감 추이 (중국)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비유학생(명)	219,939	242,700	266,924	299,562	323,177	340,111	357,035
정부초청장학생(명)	18,245	22,390	25,687	28,768	33,322	36,943	40,600
합계(명)	238,184	265,090	292,611	328,330	356,499	377,054	397,635
증감(%)	6.6	11.3	10.4	12.2	8.6	5.8	5.5

* 출처: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2016. 10. 16. 인출)

주요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출신국가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고, 상위 6개국 출신 유학생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6> 주요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중국, 2015년)

구분	한국	미국	태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기타	계
학생수(명)	66,672	21,975	19,976	16,694	16,197	15,654	240,467	397,635
비율(%)	16.8	5.5	5.0	4.2	4.1	3.9	60.5	100.0

* 출처: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2016. 10. 16. 인출)

그 중에서 한국이 66,67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16.8%를 정도였으며, 이는 2014년에 비해 0.1% 증가한 수치다. 반면에 미국과 태국, 러시아 출신 유학생은 2014년 보다 감소하여 21,975명(5.5%), 19,976명(5.0%), 16,197명(4.1%) 규모를 보였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여 각 16,694명(4.2%), 15,654명(3.94)으로 15,000명을 넘어섰다.

공개된 자료의 제한으로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전공계열과 학위과정별 현황은 2014년 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이 208,472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이 넘는 55.3%로 나타났다. 경영계열이 54,750명으로 14.5%를 차지했고, 의학계열이 52,090명 13.8%, 공학계열이 34,134명 9.1% 정도로 나타났다.

<표 7> 외국인 유학생 전공계열 현황 (중국, 2014년)

구분	인문	경영	의학	공학	사회과학	교육	기타	계
학생수(명)	208,472	54,750	52,090	34,134	9,118	6,664	11,826	377,054
비율(%)	55.3	14.5	13.8	9.1	2.4	1.8	3.1	100.0

* 출처: Project Atlas(<http://www.iie.org/Research-and-Publications/Project-Atlas>). (2016. 7. 27. 인출)

학위과정별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대학원 과정 13.5%에 비해 학부 과정이 86.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 수준에서는 비학위과정이 학위과정에

비해 약 2배가 많았으며, 대학원의 경우 대부분이 학위과정에 속해 있었다.

<표 8> 외국인 유학생 과정별 현황 (중국, 2014년)

구분	대학		대학원		계
	학위	비학위	학위	비학위	
학생수(명)	116,404	209,456	47,990	3,204	377,054
비율(%)	30.9	55.6	12.7	0.8	100.0%

* 출처: Project Atlas(<http://www.iie.org/Research-and-Publications/Project-Atlas>). (2016. 7. 27. 인출)

3) 일본

2008년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계획’ 이후, 유학생은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41,774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3·11 대지진의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는 감소 추이를 보이며 2013년 135,519명까지 줄어들었으나 2014년에는 다시 9.5%, 2015년에는 13.2%의 증가세를 보이며 외국인 유학생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세부 유형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자비유학생의 증감 추이는 유학생 증감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초청장학생은 2014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고, 자국정부과견유학생은 2012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자비유학생이 195,419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93.8%를 차지하였으며, 정부초청장학생이 9,223명(4.4%), 자국정부과견 유학생이 3,737명(1.8%)이었다.

<표 9> 외국인 유학생 유형별 증감 추이 (일본)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비유학생(명)	119,317	127,920	150,538	149,192	155,617	171,808	195,419
정부초청장학생(명)	10,168	10,349	9,396	8,588	8,529	8,351	9,223
자국정부과견(명)	3,235	3,505	3,763	4,068	3,999	3,996	3,737
합계(명)	132,720	141,774	163,697	161,848	168,145	184,155	208,379
증감(%)	7.2	6.8	-2.6	-0.2	-1.6	9.5	13.2

* 출처: JASSO(2016).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5. (2014년 5월 기준)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94,111명 45.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베트남 18.7%, 네팔 7.8%, 한국이 7.3% 정도를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특징적인 점을, 외국인 유학생을 구성하는 상위 6개국이 모두 아시아권이라는 점이다.

<표 10> 주요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일본, 2015년)

구분	중국	베트남	네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기타	계
학생수(명)	94,111	38,882	16,250	15,279	7,314	3,600	32,943	208,379
비율(%)	45.2%	18.7%	7.8%	7.3%	3.5%	1.7%	16.8%	100.0%

* 출처: JASSO(2016).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5. (2014년 5월 기준)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계열이 94,094명으로 45.2% 정도였으며 사회과학계열 55,075명, 공학계열 24,665명으로 상위 3개 전공계열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3.4%를 차지하였다.

<표 11> 외국인 유학생 전공계열 현황 (일본, 2015년)

구분	인문	사회과학	공학	기타	예술	농업	경제학	기타	계
학생수(명)	94,094	55,075	24,665	12,994	5,575	3,387	3,378	3,259	208,379
비율(%)	45.2	26.4	11.8	6.2	2.7	1.6	1.6	3.1	100.0

* 출처: JASSO(2016).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5. (2014년 5월 기준)

과정별로 살펴보면 일반4년제 대학교가 67,472로 32.4%의 비중을 보였고, 전문대학교와 대학원이 각각 40,587명, 41,396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어학연수 인원이 56,317명으로 27.0%라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2> 외국인 유학생 과정별 현황 (일본, 2015년)

구분	과정별			기타		계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어학연수	기타연수	
학생수(명)	40,587	67,472	41,396	56,317	2,607	208,379
비율(%)	19.5	32.4	19.9	27.0	1.3	100.0

* 출처: JASSO(2016).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5. (2014년 5월 기준)

3.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개과정, 추진 배경 및 목적, 체제 및 방안, 현황, 성과 및 한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구분	한국 (Study Korea 2020 Project)	중국 (중국유학계획)	일본 (유학생 30만 명 계획)	유사점
전개 과정	· 1990년대 국제화 흐름 · 2000년대 중반 의제화 · 2013년 Study Korea 2020	·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 1990년대 여타 정책적 지원 · 2010년 중국유학계획	· 1980년대 교육개혁 · 2003년 새로운 방향 제시 · 2008년 유학생 30만명 계획	· 정부주도의 유학생 유치
배경 및 목적	· 유학수지 개선 · 고령화사회 대비 학생 층원	· 인재 유출 대응 · 대학의 수익 창출	· 고도인재의 획득 · 고령화사회 대비 학생 층원	· 고등교육 국제화 · 국제사회 기여 · 국가 이미지 제고
체제	· 국립국제교육원	· 교육부	· 일본유학생지원기구(JASSO)	-
방안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대 · 부처 및 공공기관 연계 · 유학생 특별과정 개설	· 유학시범기지 지정 · 유학생 의학 교육 중시 · 언어 교육 우수 학과 지원	· 거점 대학 중심 · 대학·기업·지자체 연계	· 홍보장구일원화 · 규제 완화·절차간소화 · 장학금 확대, 여건 개선 · 취업 연계
인원	· 91,332명	· 397,635명	· 208,379명	-
유형	· 자비유학 78,845명(86.3%) · 정부초청 2,901명(3.2%) · 기타 9,586명(10.5%)	· 자비유학 357,035명(89.8%) · 정부초청 40,600명(10.2%)	· 자비유학 195,419명(93.8%) · 정부초청 9,223명(4.4%) · 기타 3,737명(1.8%)	-
주요 출신 국가	· 중국 54,214명(59.4%) · 베트남 4,451명(4.9%) · 몽골 3,492명(3.8%) · 일본 3,138명(3.4%) · 미국 2,968명(3.2%)	· 한국 66,672명(16.8%) · 미국 21,975명(5.5%) · 태국 19,976명(5.0%) · 인도 16,694명(4.2%) · 러시아 16,197명(4.1%)	· 중국 94,111명(45.2%) · 베트남 38,882명(18.7%) · 네팔 16,250명(7.8%) · 한국 15,279명(7.3%) · 대만 7,314명(3.5%)	· 아시아권 출신 편중
주요 전공 계열	· 인문사회 36,353명(65.2%) · 공 학 9,707명(17.4%) · 자연과학 4,583명(8.2%)	· 인문사회 279,004명(74.0%) · 의 학 52,090명(13.8%) · 공 학 34,134명(9.1%)	· 인문사회 159,084명(76.3%) · 공 학 24,665명(11.8%) · 예 체 능 5,575명(2.7%)	· 인문사회계열 편중
학위 과정	· 대 학 32,972명(59.2%) · 대학원 22,767명(40.8%)	· 대 학 116,404명(70.8%) · 대학원 47,990명(29.2%)	· 대 학 108,059명(72.3%) · 대학원 41,396명(27.7%)	-
성과	· 높은 고등인력 유치 비율	· 유학생 학사 관리 · 높은 의학 전공자 비율	· 높은 자비 유학생 비율 · 교육과 생활면 우수한 평가	· 유학생 규모 양적 성장
한계	· 중국인 유학생 쉼림 현상	· 대학수준의 유학지원	· 중국인 유학생 쉼림 현상	· 국가, 계열, 대학 편중 · 언어, 취업 연계 문제

주 1) 2015년 기준 현황 자료. (중국의 주요전공계열 및 학위과정에 따른 유학생 인원은 2014년 기준 자료)

1) 추진 배경 및 목적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주요정책을 비교한 결과, 추진배경과 목적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고등교육 국제화와 이를 통한 대학 평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초청장학금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고등교육의 질 또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국을 잘 알고 호의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역시 유학생 유치 정책들의 공통된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3국이 유치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전개과정과 맥락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90년대 국제화 및 해외 어학연수 열풍으로 유학 수지 적자가 급증하여, Study Korea

Project('05~'12)가 기획되었던 2004년에는 2,471백만 달러에 이르렀다(한국관광공사, 2005).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자국 내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2%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 8%에 비해 유학 수치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수치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로 여러 정책을 펼치며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해왔지만, 이보다 자국 내 우수 인력의 해외로의 '인재 유출(Brain Drain)'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Cao, 2008). 2000년대 초반까지 100만 여 명의 엘리트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며, 해외유학 후 돌아오지 않는 유학생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고령화 사회와 이에 따른 대학 재정난에 대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일찍이 사회 재구조화와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추진 체제 및 방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추진 방법도 한·중·일 3국이 거의 유사하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주도하는 주무부서와 부속기관을 갖추고, 홍보 및 유치를 위한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은 일본유학생지원기구(JASSO)를 모델 삼아 육성하였고, 유학기금 운용은 중국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를 참고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교육부, 2012), 추진 체제와 방안 역시 다른 두 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세 국가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졸업 후 사회적응 및 취업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부는 인증제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을 갖춘 대학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실대학을 제외하였으며, '유학생 특화과정 개설' 등 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거점 대학을 지정하여 지자체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유기적 연계를 유도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대학을 유학생 유치의 중심축으로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유학시범기지를 지정하고 우수 어학 교육학과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등 유학생 유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3) 추진 성과 및 한계

한·중·일 3국이 정부 주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세 나라 모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인 규모 확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2020년까지 목표한 인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달성 연도

를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하는 등 양적 목표 달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4년 기준 377,054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증가율이 2012년 12.2%에서 2014년 5.8%로 감소하고 있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3년까지 유학생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2020년까지의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기대해볼만 하다. 그리고 유학생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일본 유학생의 약 93%가 자비유학생으로 그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중국은 정부초청장학생의 구성 비율이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학 교수들이 높은 학문 수준과 열정을 보이고 교육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높은 물가에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민귀식 외, 2014).

한편, 3국은 유학생의 출신국가, 전공계열, 대도시 및 명문대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실흠 현상은 여전히 심각해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의 주요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3국 모두 아시아권 출신 유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중국인 유학생이 매우 많아 이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면서도, 그 비율을 줄여나가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민귀식 외, 2014). 양국 모두 중국인 유학생 비율을 50%로 이하로 줄이려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45.2%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59.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요 전공계열의 경우, 3국 모두 인문사회계열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은 그 비율이 약 75%에 이르고 있었다. 나머지 전공 계열의 경우, 한국은 공학과 자연과학, 중국은 경영학과 의학, 일본은 사회과학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3국이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학위과정은 한국의 대학원 과정 비율이 40.8%로 29.2%인 중국과 27.7%인 일본에 비해 높은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IT분야의 강점과 석·박사 및 연구원 중심의 국가장학사업(GKS)을 펼쳐온 결과로 볼 수 있다(남수경, 2012).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문제 및 취업 문제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유학생 30만 명 계획'으로 취업교육 및 알선, 취업비자 발급 등 유학생 활용에 관한 모든 대책을 세웠고(胡世前⁵⁾, 2012), 한국과 중국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국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문제, 제한된 영어 실력 수요, 고용시장의 불황, 졸업 이후 현지 적응 문제 등으로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민귀식 외, 2014; 이천문, 이일용, 2014; 金花, 2012; 若山薰里, 2014; 田渊敬光⁶⁾, 2013; 胡世前, 2012).

5) 호스치엔(HU Shiqian)

6) 다부치 다카아키(Tabuchi Takaaki)

4) 시사점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비교한 결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정책의 우선순위를 질적 성장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2년 ‘Study Korea 2020 Project’를 추진할 때만 해도,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질 관리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유학생 증감률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라는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유치 절차 간소화, 의료보험 특례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TOPIC) 입학 및 졸업 등급을 낮추는 등 유학생의 질 관리 수준까지 낮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한국 유학생의 질 관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Ting Yang, 황용석, 신동희와 정동우(2013)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1년간의 한국어 강좌를 들은 이후에도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민귀식 외(2014)는 한국에서의 유학이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여 질적인 저하를 초래했고 유학 1세대가 귀국 후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한국의 유학경쟁력으로 인해 유학 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하였다(민귀식 외, 2014). 국내 학생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여전히 챙겨야하고 부담을 주는 ‘불편한 손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숙사, 장학금 등과 같은 자원배분이나 입학전형 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쉽게 제공된다고 인식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임희진, 김제희, 정소현, 정하영, 김현성, 2015).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국내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 5% 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은 실제 고등교육 현장의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철저한 학사관리와 일본의 높은 학문 수준 등을 고려해볼 때, 우리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유학생 관리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참고하여 유학생 유치 지역 및 대학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유치 지역 및 대학의 다양화를 위해서 한국은 정부초청장학생(GKS)을 우수 지방대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의 ‘유학시범기지’, 일본의 ‘거점대학’ 등과 같은 접근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적응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국 내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학생 수급 문제의 해결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민귀식 외, 2014).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취업 고용을 위해서도 정부부처와 대학, 그리고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학시장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교육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뿐 아니라, 이들이 국내 취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하

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른 부처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유학 중 선호도가 높은 대학원 과정, 공학 및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매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은 유사한 배경과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쳐왔고 아시아 국가 출신, 인문계열, 명문대, 대도시 편중 등의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3국 모두 비영어권 국가로 언어 문제와 이에 파생된 생활 및 취업 문제 등에 관한 고민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학원, 공학 및 자연계열 전공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이는 지식 생산이 가능한 고급인력의 확보로 이어지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IT분야의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의학계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시하며 유학생의 어학, 전공 지식 등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고(구자역 외, 2014), 그 결과 2014년 기준 52,090명에 이르는 의학계열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교육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한·중·일 3국은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은 ‘Study Korea 2020 Project’, 중국은 ‘중국유학계획’, 일본은 ‘유학생 30만 명 유치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에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현황을 분석하였고, 유학생 유치 정책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은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유학생 출신국가 쏠림, 인문계열 편중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고, 언어 문제로 파생된 취업 연계 문제 등은 여전히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한국의 경우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응용과학 분야의 유치성과는 두드러지지만,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 관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학생 교육과 지원의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정책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 또한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학생 유치 정책의 효과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정부는 2005년 ‘Study Korea Project’를 시작으로, 2013년 ‘Study Korea 2020 Project’,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에 이르

기까지 여러 정책을 추진 및 시행해오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유학 생활에 대한 한국인 유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몇몇 연구가 있을 뿐,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유학생의 인식과 유학생 수의 증가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정책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에 관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에 관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정책 연구를 토대로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도 지속적으로 지표를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증제를 바탕으로 기본 여건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해왔고, 부실대학은 선별하여 퇴출하는 등의 질 관리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한국의 유학생의 질 관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유학생 인증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오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인증제의 지표가 실제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개정해나가야 한다.

셋째, 대학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중국의 경우,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학사 관리 차원에서 중국인 학생과 철저하게 동일 취급하여 규정에 따라 출결 관리 또한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은 유학을 통해 얼마나 학업 성취를 이루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학 교수들의 높은 학문 수준과 열정, 그리고 양질의 교육이 일본으로 유학을 오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철저한 학사 관리와 교수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0).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0년 8월 11일자.
- 교육부(201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교육부 보도자료. 2011년 8월 12일자.
- 교육부(2012a).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2b).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교육부 보도자료. 2012년 10월 29일자.
- 교육부(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4년 3월 6일자.
- 교육부(2015a). 2015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2015년 10월 13일자.
- 교육부(2015b).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7일자.
- 구자역, 김숙이, 김한나, 이경자, 전춘련(201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5.
- 김우중(2011).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0(17), 1-3.
- 김중섭(20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및 지원·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방안**. 세종: 교육부. 2-8.
- 남수경(2012). 한·중·일 3국의 정부지원 유학생정책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22(4), 75-98.
- 남수경, 유성상, 송경오(2009).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류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남윤서(2015). 한중일 유학생 유치 전쟁... 2020년까지 韓-20만, 中-50만, 日-30만 명 목표. 동아일보, 2015년 1월 29일자.
- 문홍호, 전성홍, 이희옥, 김인, 민귀식(2010).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35.
- 민귀식, 정순기, 조복수, 김지영, 김진영, 유다형, 정창운(2014).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세종: 교육부.
- 박남기(2016). 대학교육의 현실과 교육학의 과제: '실력주의사회에 대한 신화' 해체. 2016 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
- 박성훈, 송유철(2013).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and Government Responses.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31(2), 29-43.
- 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 윤나경(20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송선영, 이수진(2011). 한·중·일 세계일류대학 육성정책 동향 비교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 송영관, 양주영(2009).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현석, 노명순, 엄준용, 최보윤, 김정은(2008). 한국·일본·중국의 고급인력양성정책 현황비교 연구. **HRD연구**, 10(1), 91-122.
- 양만기(2013). 중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확대 방안: 제주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 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국인문과학**, 54, 439-472.
- 양영유(2016). '대학, 아랫목 박차고 해외로 나가라'. 중앙일보, 2016년 9월 16일자.
- 엄상현, 변기용(2012).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2, 123-155.
- 오정은, 고지영, 김경미, 김안나, 안상욱, 장지은, 한유경(2013). **우수 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 전략 연구**. 경기: IOM이민정책연구원.
- 이수정, 김승정, 임희진, 최홍삼, 허진영, 신정철(2013).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의 교육개혁 비교 연구: 교육 국제화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3(4), 1-30.
- 이천문, 이일용(2014).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24(1), 31-52.
- 임희진(2014).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계획 영향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진, 김제희, 정소현, 정하영, 김현성(2015). 캠퍼스 국제화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인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1), 243-270.
- 전재은(2013). 한국 대학생의 이문화 역량에 대한 이해와 행동 반응. **아시아교육연구**, 14(3), 231-259.
- 전재은, 장나영(2012).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 전해용(2014).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14(31), 2.
- 한국관광공사(2005). 2004 한국관광통계연보. 강원: 한국관광공사
- 한유경(2011). 한·중·일 국비유학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29(1), 193-214.
- 홍여진(2012). '유학생인증제' 학생충원 더 힘들다. 한국대학신문, 2012년 1월 27일자.
- 教育部(2010). 留学中国计划. 北京: 中國人民共和國教育部.
- 金花(2012). 在日외국인 유학생 취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內閣府(2007). アジア・ゲートウェイ構\想",アジア・ゲートウェイ戰略會議. 平成 19年 5月 16日.
- 文部科学省(2008). 留学生 30万人 計画の骨子: 取りまとめの考え方に基づく具体的方策の検討. Tokyo: 文部科学省 中央教育審議会 大学分科会 留学生特別委員会. 平成 20年 7月 8日.
- 若山薰里(2014). 일본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정책; 활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田淵敬光(2013). 일본의 고도인재(高度人材) 유치정책: 방일 유학생의 외적요인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9, 283-295.
- 胡世前(2012). 중국유학정책이 '留韓熱'의 지속적인 유지에 미친 영향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7, 443-466.
- Cao, C. (2008). China's brain drain at the high end. *Asian Population Studies*, 4(3), 331-345.
- Kubow, P. K. & Fossum, P. R. (2007). *Comparative education: Exploring issues in international context* (2nd edition). Prentice Hall.
- Landman, Todd (2016). *Issues and methods in comparative politics: An introduction* (4th edition). London: Routledge.
- JASSO(2016).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5*. Tokyo: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 Jon, J.-E., & Kim, E. Y. (2011). What it takes to internationalize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English-mediated cours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J. D. Palmer, A. C. Roberts, Y. H. Cho & G. Ching (Eds.), *Globalization's influence up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ast Asian higher institute*. NY: Palgrave Macmillan.
- Robertson, S. L. (2010). Globalizing UK higher education. LLAKES Reserach Paper 16. London: Center for Learning and Life Chances in Knowledge Economies and Societies.
- Ting Yang, 황용석, 신동희, 정동우(2013). International Students' Socialization and Social Support, In Case of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4(2), 381.
- Zhang Lei Sheng(2014). 제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문화간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웹사이트]

- | | |
|------------------|--|
| 일본유학종합시스템 | www.jasso.go.jp/en/index.html |
| 중국유학종합시스템 | www.csc.edu.cn/studyinchina |
| 중국 Project Atlas | www.iie.org/en/Services/Project-Atlas/China#.V5l-NriLS70 |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 www.studyinkorea.go.kr |
| 스태티스타 | www.statista.com/statistics/ |

- * 논문접수 2016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9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11월 25일 / 게재승인 2016년 12월 9일

- * 김한나: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교육행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 E-mail: hannakim@kedi.re.kr / Tel: 02. 3460. 0627, 010. 5713. 5113

- * 우한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연수주임으로 재직 중이다.
- * E-mail: shout4god@snu.ac.kr / Tel: 02. 880. 7810, 010. 2636. 9287

- * 이승호: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 E-mail: hivision@snu.ac.kr / 010. 9076. 212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Chinese-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Attraction Policy

Kim, Hanna*

Woo, Hansol**

Lee, Seung-ho***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which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s the heart of the global educational cooperation in these days of intensifying exchange between worldwide universities in line with the era of global education, look at the relevant policies in the order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make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ree countries' status.

To achieve this, it looks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traction policies of Korea,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and the current status of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traction for each country, and elaborates the theoretical outlin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ttraction policy in Korea to widen the horizon of understanding. It also looks at the purpose and plan of international students attraction polici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current status with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ir country of origin, major, and degree course classified, and outcomes and limitations comprehensively, discusses the issue(s) in dispute, and draw sugges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activating more educ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Furthermore, it expects that our country's educational policy and each country's educational policy can flow organically and consistently within the framework of global education.

Key words: Foreign students recruitment policy, Foreign students recruitment activation, Study Korea 2020 Project, Global Education

* First Autho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annakim@kedi.re.kr

** National Academy for Education Administrators, shout4god@snu.ac.kr

*** Seoul National University, hivision@snu.ac.kr